

지역 소식통



정읍시, 중국 서주시 명소 사진 전시... 교류 활성화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강소성 서주시의 명소 사진전이 정읍시청 1층 로비에서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양 도시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서주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적 매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서주시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서주시의 대표적인 자연경관과 도시 전경을 담은 10점의 사진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서주시의 문화적 가치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자매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51회 모양성제 프로그램 참가 신청 접수

1천만 관광객이 고창군 대표축제인 '제51회 고창모양성제(10월9일~13일)'를 더욱 풍성하게 할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 신청 접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먼저, '모양성 달빛에 소원을 말해봐-소원등 달기' 사진 접수가 9월30일까지 고창모양성제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 접수를 통해 소원을 작성하면 소원등을 축제 기간 동안 모양성 내에 달 수 있다.

또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시포의 생일잔치'는 스토리형 댄스 페스티벌로 흥겨운 분위기를 이끄는 청소년들의 재능을 뽐내는 자리다. 9월 20일 까지 고창문화관광재단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MZ세대와 함께하는 '온고신 답성놀이'는 MZ세대에게 신선한 답성놀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9월30일까지 사진 신청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치원료산업 메카로 육성'

고창군, 최고 시설의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

대산면에 절임배추 생산·저장 등 시설 설립

김치 원료 주산지인 고창군 대산면 일원에 절임 배추 생산·저장 등 최첨단시설을 갖춘 김치 원료 공급단지가 만들어진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김치 원료 공급단지 전국 3번째 대상지로 고창군을 선정했다. 앞서 충북 괴산과 전남 해남군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규모 저온 저장시설과 절임 생산시설 조성 등을 통해 안정적인 김

치 원료 조달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김치 제조업체 등을 주 출하 대상으로 김치 원료를 생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총사업비 290억원(국비 118억원, 도비 82억2000만원, 군비 8000만원)을 들여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된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가 들어서면 배추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은 물론 절임배추 등 가공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단지에서 사용하는 배추는 전량 생산 농가

등과 계약재배로 확보하며, 단지 시설물은 절임 배추 등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다.

이곳에서 절임배추를 연간 1만2000톤(하루 50톤)의 생산과 신선 배추 또한 저장·공급 할 것으로 예상돼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김치 원료 공급단지는 지역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김치 주·부재료 재배 농가와 지역 기반 김치 공장의 안정적 판로이자 공급망이 될 것이다"며 "고창군이 김치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 행안부 성과점검 결과 장관상 수상

부안군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점검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분야를 평가해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성과점검은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군 단위 2개)를

선정했다. 군은 지난 3월 2024년(2023년 실적)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지자체 적극행정 부문에서 연이은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군은 이번 성과점검에서는 재무과에서 추진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연이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들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군민 체감도 높은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값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현장 목소리 경청... 시민 불편 해소 앞장

이학수 정읍시장, 매주 사업장 점검 시민 의견 수렴

이학수 정읍시장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시설 위주로 점검이 이뤄져 더욱 의미가 깊다. 문화예술플랫폼 리모델링 현장에서

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면적을 추가 확보하고, 화장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시장은 "문화예술플랫폼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옛 태안백화점 부지에서 이 시장은 "태안백화점 부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시민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곡천 물품마당 공영주차장에서는 출입구 인도 부분을 개선해 차량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고, 경차 주차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케어넷으로 쉽고 빠르게... 정읍시, 어르신 돌봄 접수창구 시범운영

정읍시가 스마트 통합돌봄 도시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대학교 지역돌봄과 건강형평성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돌봄 데이터 연계서비스 플랫폼인 케어넷 앱을 통해 읍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케어넷 앱에 가입해 본인 또는 주변의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 기간인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앱을

통해 건강 복지,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요구사항을 등록하면, 지역 마을돌봄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돌봄매니저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돌봄 의뢰자와 마을돌봄매니저는 케어넷 앱을 통해 채팅으로 상담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며, 앞으로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추석전 우박·양파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봄 우박피해와 양파 생육부진을 겪은 피해농가 총 489명에 대해 10억2000여만원의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을 추석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15일께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창군에 갑작스러운 우박이 내려 논지 고추, 담배, 블루베리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군에서는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농민으로부터 212농가 94ha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양파 정식이후 고온현상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추대(꽃대 올라옴), 분구(2개나 그 이상으로 분화돼 각각 분리된 알맹이가 형성) 등 양파생육부진 277농가 288ha에 재난지원금이 확정됐다.

고창군은 군 전체면적의 40.4%가 농경지이고, 38.3%가 농업인인 전형적인

농군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약사업으로 농업재해보험료 군비지원을 확대해 2022년 농가 자부담 20%에서 올해 10%의 자부담만으로 가입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전북도내 14개 시군비 지원액중 가장 많은 예산이다.

또한 지난해 8월 전북도내 2번째로 고창군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군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75명에 3600만 원을 지원했다.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농가는 읍면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통해 재난지수에 따라 재난지원금(국비,지방비)을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어민 공익수당 추석명절 전 지급

부안군은 관내 1,226여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총 7356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년 이상 전라북도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면서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어민공익수당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절

차 등을 거쳐 2023년 1,120여가 대비 106여가가 증가한 1,226여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어민 공익수당은 충전형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카드를 보유한 어가는 별도 방문 절차없이 자동충전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공익수당을 신청한 해당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민 공익수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